

무명 신인 배우들 '스타덤' 합류

'사랑의 온도' 양세종·'매드독' 우도환·'병원선' 강민혁

누군가의 입대는 누군가에게 기회가 된다. 정글같은 연예계에서는 더욱더 치열하다.

김수현·이민호·지창욱·주원·임시완·이준이 입대하면서 무명 신인 배우들이 스타 자리를 꿰차고 있다.

입대한 스타들이 개점 휴업에 들어가면서 '드라마 주인공을 맡은 남자 배우가 없다'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치고 올라오고 있다.

드라마 제작사는 속이 타지만, 신인 배우들에게는 기회다.

상대적으로 조금만 두각을 나타내도 주연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차세대 스타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

최근 방송 중인 드라마에서는 이런 기회를 낚아채는 데 성공한 배우들이 있다. 1~2년 전까지만 해도 무명에 가까웠던 이들은 단번에 스타가 됐다.



무명에서 단번에 스타가 된 양세종(왼쪽)과 강민혁.

◇ '사랑의 온도' 양세종, 데뷔 1년 만에 주연

현재 인방극장에서 가장 뜨거운 배우를 꼽으라면 역시 양세종(25)이다. SBS TV 월화드라마 '사랑의 온도'에서 주연을 맡아 열연을 펼치고 있는 그는 사실 데뷔한 지 1년 된 신인에 불과하다.

지난해 SBS TV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로 연예계에 발을 디뎠고, 이후 차례로 '사임당 빛의 일기'(2017) '듀얼'(2017)에 출연한 경력에 전무다. 앞선 두 작품에서는 조연, 전작에서는 주연급 조연이었다.

양세종이 놀라운 건 단시간 내에 연기 급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출연 중인 '사랑의 온도'에서도 서현진·김재욱 등 베테랑 배우들에게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선보이며 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현대극·사극·장르물을 거친 그는, 자상과 로맨스 드라마에 출연하며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현재 그에게는 수십편의 시나리오가

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매드독' 우도환, 단역에서 주인공으로

우도환(25) 또한 양세종과 함께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배우다.

그는 현재 KBS 2TV 수목드라마 '매드독'에서 주인공 중 한 명인 '김민준'을 맡아 열연을 펼치며 관계자들로부터 눈도장을 받고 있다.

우도환 또한 데뷔한 지 1년이 넘은 신인이다.

'매드독' 이전 그가 출연한 작품은 단 4편이다. 영화 '인천상륙작전'과 '마스터'에서는 단역이었고,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와 '구해줘'에서는 조연이었다. 그야말로 놀라운 속도로 지상파 드라마 주연 자리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우도환은 신인다운 넘치는 에너지가 장점이다.

안정적인 연기력을 갖췄다고 하기에 아직 무리가 있지만, 캐릭터에 순간적으로 몰입해 들어가는 힘이 인상

적이라는 평가다.

◇ '병원선' 강민혁, 지지원과 호흡 스타덤 예고

MBC TV 수목드라마 '병원선'이 방송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작품의 불안 요소는 강민혁(26)이었다.

전천후 배우로 꼽히는 지지원과 호흡을 맞출 주연 배우로 강민혁의 무게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민혁은 방송이 진행될수록 스스로 연기력을 키워나가며 이런 우려를 불식했다.

밴드 '썬앤블루'의 드러머이기도 한 강민혁은 2012년 드라마 '남몰래 굴러온 당신'으로 본격적으로 연기를 시작했다. 이후 '상속자들'(2013) '판파라'(2016) 등을 거쳐,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데는 실패했다.

그는 첫 주연작인 '병원선'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주연급 배우로도 손색없는 실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뉴시스

골프존의 성공신화, 스크린샷시 '피싱조이'로 한번 더

골프존뉴딘그룹의 계열사인 (주)뉴딘 플렉스(대표이사 송지현)는 오는 11월 7일과 8일, 서울 송파구 피싱조이 직영점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1대 1 창업컨설팅도 함께 진행된다. 피싱조이는 가상스크린과 센서형 구동부, 전자필이 달린 뉴시대를 가지고 실제 뉴시와 같은 짜릿한 손맛과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스크린 뉴시 공간이다.

피싱조이는 실제 바다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여타 스크린 스포츠와 달리 가로 22.5m, 세로 2.5m의 대형 파노라마형 스크린을 적용했다.

대형 스크린 위에 구현된 목지도와 마라도 앞바다 광경에 파도소리와 갈매기 소리 등의 사운드가 어울린다.

또 게임에 사용되는 센서가 달린 뉴시대는 어종 별 특유의 입질과 움직

임을 그대로 재현했다.

장점은 경제적 창업 비용이다.

'피싱조이'는 가맹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가맹비와 로열티 등 부수적 비용 발생하지 않는다.

정형화된 F&B존과 인테리어가 아닌 희망하는 인테리어를 제품과 접목시킬 수 있다.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매장 내에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다.

/뉴시스

프로야구 SK, 켈리·로맥과 재계약

켈리 총액 175만 달러

로맥 총액 85만 달러

프로야구 SK 와이번스가 외국인 선수 메릴 켈리(29), 제이미 로맥(32)과 내년에도 함께한다.

SK는 지난 27일 외국인 투수 켈리와 총액 175만 달러(연봉 140만 달러·옵션 35만 달러)에 재계약 했다고 밝혔다.

또 로맥과는 총액 85만 달러(연봉 50만 달러·옵션 35만 달러)에 도장을 찍었다.

켈리는 올 시즌 30경기에 등판해 190이닝을 던지면서 16승 7패 평균자책점 3.60을 기록, SK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리그에서 3번째로 많은 이닝을 소화한 켈리는 189개의 삼진을 잡아내며 탈삼진왕에 등극했다.

2015년 SK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데뷔한 켈리는 4년째 SK 유니폼을 입게 됐다.

켈리는 2016시즌을 마치고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고, 올 시즌 켈리가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빅리그 구단들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시즌 SK 구단은 켈리와 구단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맺었다. 조건을 모두 충족했고, SK가 구단 옵션을 포기할 리 만무했다.

팔꿈치 수술 이후 재활 중인 토종 좌완 에이스 김광현의 복귀를 기다리



메릴 켈리



제이미 로맥

고 있는 SK는 켈리와도 재계약하면서 내년 시즌 남부럽지 않은 원투펀치를 보유할 수 있게 됐다.

지난 5월7일 대니 위스의 대체 외국인 타자로 한국 무대를 밟은 로맥은 102경기에 출전해 타율 0.242(359타수

87안타) 31홈런 64타점을 기록했다.

로맥은 KBO리그 데뷔 21경기에서 10개의 홈런을 몰아치며 괴력을 과시했지만, 이내 약점을 드러냈다. 정확도가 떨어진다라는 지적을 받은 로맥은 타율이 0.182까지 떨어지는 등 고전했고, 홈런 페이스도 크게 떨어졌다.

고전하던 로맥은 9월 이후 19경기에서 타율 0.357(70타수 25안타) 12홈런 20타점으로 부활, KBO리그 무대 적응 기대를 높였다.

로맥의 인성과 성실함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계약을 마친 켈리는 "다시 SK에서 뛰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인천에서 매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팀과 내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응원해주신 팬 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다음 시즌을 잘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로맥은 "구단의 빠른 재계약 결정에 감사하고, 내년에도 인천에서 뛰는 것이 너무 흥분돼 이번 겨울이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다"며 "팀원들과 팬들을 빨리 만나고 싶다. 내년에 더 좋은 활약을 위해 어느 때보다 오프시즌 준비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SK는 이제 한 자리만 더 채우면 내년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이 끝난다.

올 시즌 24경기에서 10승 7패 평균자책점 4.42를 기록한 외국인 투수 스캇 다이아몬드(31)는 재계약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뉴시스

윤석영 또 부상, 11월 대표팀 소집 불발

일본 리그에서 뛰고 있는 측면 수비수 윤석영(가시와 레이슬러)이 또 다시 부상으로 쓰러졌다.

가시와는 지난 25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윤석영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6~8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영은 지난 21일 오미야전에서 부상을 입었다.

당시 윤석영은 왼쪽 측면 수비수로 나서 풀타임을 소화했다.

이번 부상으로 윤석영은 잔여 시즌은 물론 다음 달 A매치 소집 명단에서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자칫 회복이 더딜 경우 12월 동아시아컵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윤석영은 이달 초 유럽 원정 2연전을 앞두고 처음 신태용호에 선발됐지만, 소집 직전 부상으로 이탈했다.

그때 다친 부위 역시 오른쪽 햄스트링이었다.

윤석영의 부상은 김진수(전북), 김민우(수원) 외에는 전문 왼쪽 측면



수비수를 발굴하지 못한 신태용호에 고민을 안겼다.

한편 신 감독은 오는 30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2연전에 나설 선수들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다음달 10일 콜롬비아(수원), 14일 세르비아(울산)를 상대로 기량을 점검한다.

/뉴시스

코오롱FnC 엘로드 VIP 고객 초청 골프 대회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하 코오롱FnC)에서 전개하는 프리미엄 골프웨어 브랜드 '엘로드'가 VIP 고객 초청 골프대회 '2017 엘로드 인비테셔널(ELORD INVITATIONAL)'을 30일 천안 우정힐스 컨트리클럽에서 개최한다.

이번 엘로드 인비테셔널은 144명의 엘로드 VIP고객들이 참가해 36개 조를 이루어 신페어링 방식으로 진행되며, 엘로드에서 후원하는 국가대표 골프선수의 원포인트 레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엘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카구치'와 함께하는 스타일링 클래스를 운영, 2018 봄·여름 시즌 신상품 소개 및 품격 있는 필드 스타일링 연출법 등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스키케어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위즈더마 필업스토어'와 '포토존'을 운영하고, 구간구간 마다 이벤트를 마련해 푸짐한 선물을 제공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